



란나왕국의 흔적을 찾아서 Ⅲ: 산신제 ‘뿌쌌야쌌’

Tracing Lanna Kingdom Ⅲ: Religious Ritual for the Mountain Spirit 'PusaeYasae'

배수경*

Soo Kyung BAE

치앙마이는 오늘날 방콕을 중심으로 한 태국의 첫 왕조가 시작된 곳이라 믿어지는 수코타이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평면은 가로 2킬로미터, 세로 1.8킬로미터의 정방형과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사각형의 각 변은 동, 서, 남, 북의 네 방위를 향하고 있다. 치앙마이는 벽돌로 쌓은 성 사이로 이중의 해자가 설치되어 있는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이다. 흔히 구시가지라고 표현되는 이곳은 서쪽으로는 더이¹⁾ 수텡(산)과 더이 뿌이(산)이 위치하고 동쪽에는 매남²⁾뽕(강)이 위치하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입지이며, 성의 남서쪽과 북서쪽에는 성과 연결되는 운하가 설치되어 있다. 성의 각 방향은 성문이 오늘날까지 남아 도시의 주요 상징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더이수텡은 치앙마이를 지켜주는 영산(靈山)으로 오늘날까지 치앙마이 인들이 받들고 있는 산이다. 특히 일년에 한 차례씩 ‘리양동 뿌쌌야쌌’라고 하는 산신제를 올리는데 이

*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강사. thai@iseas.kr

1) 더이는 태국어로 산(山)의 의미이다.

2) 매남은 태국어로 강(江)의 의미이다.

산신제를 들여 다 보면 치앙마이인들의 독특한 믿음을 엿볼 수 있다.

1. 뿌쌌야쌌 산신제의 기원

“쌌” 라는 단어는 란나어에서 명사로 혹은 동사로 쓰이는 단어이다. 명사로는 도깨비의 일종인 ‘뿌쌌야쌌’의 명칭에 쓰이기도 하고, 노란 꽃을 피우는 ‘똥쌌’라 부르는 나무에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동사로 쓰일 때는 걷는다는 의미로 신발을 질질 끌면서 걷는다는 뜻의 ‘띠양쌌 꺾’으로 쓰인다.

“뿌쌌야쌌”는 예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전설과 같은 것으로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러나 전해 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 부파나컨이라는 도시가 있었다. 이 도시는 루와족³⁾의 도시로 오늘날 치앙마이의 매남뺑과 더이어이창 사이에 세워져 있



<그림 1> ©thairath. 뿌쌌야쌌상. 치앙마이 소재.

3) 오늘날 루와(LUA)족은 주로 산악지대에 거주를 하고 있다. 현재 태국 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치앙마이 일대에 약 2만 5천명 정도 살고 있다. 오스트로 아시아어 계의 몬-크메리어족으로 분류되며 루와족은 스스로를 ‘라와’ 혹은 ‘와’라 부르기도 한다. 이 종족의 시작은 아마도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부지역이라고 보는데 오늘날 태국의 룽부리 근처라고 생각된다. 그 뒤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매남뺑을 따라 이주한 첫 번째 집단과 오늘날 미얀마의 샨(Shan)주를 중심으로 매남콩(살원강)변에 정착한 또 다른 집단 등이 있었다. 이 중에 매남뺑을 중심으로 모여 살던 종족들을 태국에서는 루와족이라 부른다. 오늘날 루와족은 거의 태국화가 되었다고 보지만 그들의 생활 곳곳에 오래된 믿음에서 기인하는 제사의 습성은 남아 있어 ‘리양동 뿌쌌야쌌’와 같은 산신제로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다.

었다고 한다. 이 도시의 주민들은 그다지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아빠, 엄마, 아들로 구성된 도깨비 가족들이 이 도시의 주민들을 매일같이 잡아먹어 온 도시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다. 이 도깨비들을 피해 도시를 떠나는 주민들로 이 도시의 민심은 흉흉했고 남아 있는 주민들도 언제 도깨비들에게 잡아먹힐지 몰라 매일 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부처님은 크게 걱정을 하시고 도깨비들을 떠 보기위해 보통의 인간모습으로 변신을 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 도깨비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어김없이 사람으로 변신하신 부처님을 잡아먹으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처님의 언행에 크게 감동한 도깨비들은 스스로가 한 악행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부처님의 말씀대로 5계를 지키고 살겠노라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이 도깨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들은 도저히 육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일 년에 한 마리 정도라도 먹게 해 달라고 부처님께 간청을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참다못한 도깨비들은 도시의 왕과 주민들을 찾아가 제발 일 년에 한 마리의 귀가 축 늘어진 짐승을 먹게 해 달라는 간청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만 해 주면 절대로 사람은 잡아먹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하였다. 그와 같은 도깨비의 간청에 도시의 왕과 주민들은 매년 물소 한 마리씩 주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결정을 전해들은 부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도깨비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하여 ‘뿌쌔’라 불리는 아빠 도깨비는 북쪽의 더이수텡을 지키게 하였고, ‘야쌔’라 불리는 엄마 도깨비는 남쪽의 더이감을 지키게 하여 이 도시에 새롭게 평화와 행복을 찾게 하셨다.

남은 아들 도깨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처음 부처님을 만났을 때 받은 감동으로 5계를 끝까지 지키며 부모 도깨비들의 악행에 대한 업을 닦는 일에 매진한 결과 ‘쑤테와르씨’라 불리는 훌륭한 비구로 남은 삶을 마쳤다. 이후로 루와족들의 도시인 부파나켄에서는 대대로 뿌쌔야쌔의 요구대로 매년 물소 한 마리를 잡아 바치는 제사를 지켜왔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아주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도깨비 세계에도 효는 엄연히 존재한다고 믿는 란나인의 가치관과 가장 가치 있는 삶



<그림 2> ©holidaythai.
수테와르씨상. 람퐁 소재.

의 마지막은 비구로 마감하는 것이라는 란나인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기도 하다.

2. 뿌쌌야쌌 산신제의 경과

이 ‘리양동 뿌쌌야쌌’라는 산신제는 16세기 중엽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 하는데 프라메꾸시대⁴⁾에 치양마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시기에 주민들은 뿌쌌야쌌을 달래는 대대적인 제사를 올리게 되었고, 치양마이의 마지막 통치자인 짜오깨우나와랏의 시대(1909년-1939년)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믿음에 따라 매히야 마을과 쉐텨 마을, 두 군데에서 제사를 지냈다. 매히야 마을에서는 수텨 마을보다 3일 뒤에 제사를 지냈는데 통상적으로 태국력 9월 보름(매년 양력 5월말에서 6월 초순경에 해당)이 제삿날로 맞추어졌다. 이 제사는

⁴⁾ 1551년-1558년까지 치양마이를 통치함. 망라이 대왕의 마지막 왕자로 이 시기는 란나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나친 노동력의 착취와 과도한 세금 징수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였다. 또한 주변 국가들의 예절과 풍습을 무작위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란나의 고유한 전통문화가 훼손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란나문화는 많은 변질을 가져왔으며 버마의 통치하에 놓이는 수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마을 주민의 행사로 간주되어 1930년대 말까지는 치양마이 시장을 비롯하여 관리들이 참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매년 매히야 마을에서 한 차례 합동제사를 올리고 있다.

이 제사는 뿌쌌야쌌에 대한 전통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치양마이인들이 단지 더이수텡과 더이감을 지켜주는 산신이 아니라 불교를 숭상하고 자신들을 돌보는 수호신으로 뿌쌌야쌌가 남아 주기를 기원하며 지방 산신제의 형태로 매년 제사를 올리고 있다.

이 산신제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제물로 물소를 쓴다는 것인데 시작은 도깨비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그들의 요구에 따라 매년 음식으로 내어 주었던 물소였으나 오늘날은 종교의 수호자, 땅의 수호자를 위한 제물로 바쳐지고 있으니 물소의 의미가 훨씬 더 커진 것은 물론이고, 뿌쌌야쌌에 대한 주민들의 믿음도 훨씬 신성한 것이 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부처님이라 자연스럽게 불교와 융합이 되어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불교와 민간신앙이 만나 오늘날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 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사를 모시는 날이 수요일과 겹친다면 다음날로 제사를 모시도록 한다. 이는 수요일에 의식을 행하면 귀신들이 알아차리지 못해 오지 못할 것이라는 란나인들의 믿음에 기인한 것이다. 매년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왓⁵⁾프라탓더이캄의 동쪽편 언덕으로 정해 두었는데 오늘날 제 3 국립공원이 위치한 치양마이의 매히야에 소재하고 있다.

3. 뿌쌌야쌌 산신제의 순서

이 제사의 가장 큰 제물인 숫물소를 고르는 일부터 시작된다. 뽑은 귀를 덮지 않을 정도의 길이로 약간 짧은 듯하나 강하게 보여야 하고, 아직 써레질을 해 본 적이 없어야 하며, 발굽은 꿀색을 띠는 젊고 튼튼한 소로 골라야 한다. 선택된 소는 제사를 올릴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공

⁵⁾ 왓은 태국어로 사원(절)의 의미이다.



<그림 3>
©Kenji2554.

터에서 가죽과 머리 부분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부위별로 장만을 한다. 물소를 장만하는 일은 오직 남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란나어로 ‘둥’이라 하는데 ‘둥’이라는 의미에는 산짐승을 잡아 제물로 삼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리양동 뿌쌌야쎌’이다.

그 다음으로는 왓더이캄 근처의 언덕에 부처님의 입상을 그려 놓은 불화를 길게 늘어 뜨려 거는 일이다. 이 불화는 매년 같은 장소에 걸리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은 본격적인 제사 준비에 들어가는데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 1) 대나무와 바나나 이파리를 사용하여 각종 제물을 바칠 작은 신당을 만들



<그림 4> ©Shintaro. 산신제에 쓰이는 괘불화.

어 둔다. 뿌쌌와 야쌌를 포함한 12 귀신⁶⁾을 위한 신당인데 특별히 뿌쌌와 야쌌의 것은 가로, 세로 50센티미터로 다른 신당들에 비해 약간 크다. 신당 안에는 각종 제물을 마련하여 귀신들을 대접할 준비를 한다. 이 제물을 준비하는 일은 여자들의 일로써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제물들은 각 신당별로 올려두고 싸이썸(성스러운 실)로 엮어 둔다. 이는 자손들에게 좋은 기운이 깃들게 하려는 의미이다. 이 신당은 산신제를 위한 한시적인 신당으로 산신제가 끝나고 나면 폐기를 한다.



<그림 5> ©bee-hero.
각 신당들의 모습.

- 2) ‘마키’라고 불리는 제사장⁷⁾에 의해 뿌쌌야쌌를 불러들이는 초혼의 식을 시작으로 산신제가 시작된다. 이 때 뿌쌌야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지켜주는 모든 신들을 한꺼번에 차례차례로 불러들여 제사를 받도록 기원한다.

6) 쿤루영위랑카, 프라낭짬마테위를 포함한 란나 지역을 통치했던 왕들을 포함한다. 쿤루영위랑카는 루와족의 통치자였는데 그가 다스린 지역은 오늘날 치앙마이외의 매남 땡강변의 평야지대로 보인다. 쿤루영위랑카는 당시 오늘날 람퐁지역인 몬족의 하리퐁차이를 다스리고 있던 낭짬마테위와 동시대 사람으로써 대략 8세기 경이다. 그 당시에 두 부족국가인 루와족의 쿤루영위랑카와 몬족의 낭짬마테위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전해온다. 쿤루영위랑카는 낭짬마테위를 사랑하여 평생을 구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죽어서도 낭짬마테위가 다스리는 하리퐁차이를 바라 볼 수 있는 곳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하였다 한다.

7) 무당, 영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옳으며 매년 제사장은 바뀔 수 있고 남녀의 규정은 없이 그 해의 사정에 따라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림 6> ©Kenji2554.
제사장의 초혼의식.

3) 뿌쌌야씨가 제사장의 몸을 빌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12 신당에 준비해 둔 제물들을 조금씩 맛을 보고 그 다음으로 장만해둔 물소고기를 먹기 시작한다. 이 때 물소의 등가죽을 타고 앉아 제일 먼저 물소의 피를 마시며 잘라 놓은 물소의 살점을 날 것으로 먹으며 ‘라오댕’이라는 술을 함께 마신다.



<그림 7> ©Kenji2554.

4) 뿌쌌야씨가 배가 부르게 잘 먹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제사장은 미리 준비한 이쭈시개로 이를 쭈시고 물소 등가죽을 베고 잠시 눕는다.



<그림 8> ©Kenji2554.

- 5) 그 다음 모인 주민들을 위해 제사장은 뿌쌌야쌌을 대신하여덕담을 해주거나 소원을 듣고 축원을 해준다.
- 6) 위와 같은 뿌쌌야쌌의 역할이 끝난 뒤 뿌쌌야쌌을 제사장의 몸 밖으로 내보내기위해 제사장은 잠시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난다.
- 7) 제사를 올리고 난 뒤 남은 물소고기는 먹거나 가져가지 않고 모두 땅에 묻어 버린다.
- 8) 모든 중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초청한 승려에게 먼저 공양을 올리고 난 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로 축원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 모든 의식은 오직 제사장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며 제사장이 지명한 도우미들만이 제사장을 도울 수 있다. 그 외 제사에 참여 할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근처에 울타리를 치거나 간격을 두고 참관이 가능하며 제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오늘날 뿌쌌야쌌 산신제의 의미

오늘날 뿌쌌야쌌 산신제는 치양마이에서 매년 태국력 9월 보름에

열리고 있다. 치앙마이를 지켜주는 영산(靈山)으로 믿는 수텟산 자락에 위치한 매히야 마을에서 그 지역의 가장 성대한 제사로 거행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지역민들의 뿌쎌야쎌 산신제를 바라보는 의미가 예전과 많이 달라 있음을 알 수 있다. 뿌쎌야쎌는 원래 날짐승고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포악하고 잔인한 성정을 가진 도깨비였고 그런 도깨비를 달래기 위하여 매년 물소를 한 마리씩 잡아 주기로 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예로부터 농사가 중심이 되었던 이 지역에 풍부한 비를 내려 달라는 기우제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으며 뿌쎌야쎌의 도술로 이 마을의 모든 악한 기운을 물리 칠 수 있다는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다.

뿌쎌의 ‘뿌’는 태국어로 할아버지를 의미하고, 야쎌의 ‘야’는 태국어로 할머니를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뿌쎌야쎌 산신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조상신을 위로하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혼합되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제사를 통해 기원하는 것들도 한층 다양해 졌다.

처음에는 단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한 기원이었다면 오늘날은 농사에 유익한 비를 적절히 내려주고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며 특별히 자손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기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산신제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병이 낫는다는 속설을 가지고 있어서 일 년에 한 번 드리는 산신제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참관을 하는지라 오늘날은 지역 축제의 기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의식을 보면 불교와 원시종교가 융합되어 아주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 있다. 제사를 올리기 전에 불화를 걸어 두거나 승려를 초청하여 제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불교식 축원으로 마무리 짓게 하는 것은 산신제가 귀신을 위한 제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준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작은 지역 주민의 결속을 다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힘을 합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의 표출로 보인다. 이는 뿌쎌야쎌의 설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불교의 자비 정신으로 죽임과 괴롭힘을 당한 도깨비를 감동시켰고 또 그런 도깨비를 위로하여 자신들의 수호신이 되게 한 부처님의 가피가 가장 중심이 되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깨우의 말을 빌자면 “산짐승을 잡고 익히지

얇은 날고기와 피를 마시는 행위는 불교에 위배되는 행위라고는 하나 가장 적은 희생으로 온 마을을 구하고 또 한해의 평화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니 부처님도 이해해 주시겠죠?”